

SNK, 글로벌 IP사업 다각화 '순항 中'

- 높은 인지도 바탕으로 해외 대형 게임사로부터 잇따라 러브콜
- 최근 공시 현금성자산으로 케이맨 제도에 설립될 펀드에 공격적 투자
- “기회 되면 IR간담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일일이 공유할 것”



글로벌 게임업체 SNK인터랙티브가 일각에서 들리는 자금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SNK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와 ‘사무라이 쇼다운’, ‘메탈슬러그’ 등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로 향후 ‘문화, 오락, 첨단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계의 투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18일 전했다.

SNK인터랙티브는 지난해 5월 7일 국내 증시에 상장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게임회사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흥행하고 있는 게임 IP(지적재산권)로 라이선스 사업과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IP 라이선스 사업이 매출을 올리고 있어 개발비나 마케팅비가 크게 소요되는 여타 게임사와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넷마블이 SNK의 대표 격투 게임인 ‘더 킹 오브 파이터즈(이하 KOF)’ IP를 기반으로 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를 선보였고, 중국 대형 게임사인 창유를 통해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익스트림’을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중국 유수의 게임업체와 지식재산권(IP) 라이선스 제휴로 진행한 캐릭터 콜라보가 돋보였다. SNK는 자사의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와 릴리스 게임즈(Liith Games)의 모바일 RPG ‘AFK 아레나’와 콜라보를 진행했다. 이번 콜라보로 ‘AFK 아레나’는 SNK의 대표 캐릭터인 ‘타치바나 우료’를 지난 4월, ‘나코루루’를 6월 콜라보 영웅으로 영입해 게임 유저들의 상당수 관심을 모았다.

또한, SNK는 중국 텐센트게임즈와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오래전부터 긴밀히 협의했다. 지난 7월 초, SNK는 텐센트 산하의 게임 개발그룹인 티미 스튜디오가 현재 SNK 전설의 걸작 IP인 ‘메탈슬러그’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 ‘메탈슬러그 코드: J(가칭)’을 중국에 출시하기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세부적인 공식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SNK의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는 지난 6일 텐센트게임즈의 인기 모바일 게임 '왕자영요'와 콜라보를 선보였다. 자사 최신작인 '사무라이 쇼다운'에 '왕자영요' 인기 캐릭터 '공손리'를 무료 배포하였다. 특히 '왕자영요'는 텐센트게임즈가 2015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AOS 게임으로, 전세계 2억명의 등록자수를 돌파한 히트작이다.

텐센트게임즈와의 IP 제휴는 텐센트게임즈가 처음으로 선보인 전쟁 전략 모바일 게임 '난세왕자'와 콜라보다. SNK의 최고 인기 캐릭터 중 하나인 '타치바나 우쿄'가 참전했는데, '난세왕자'는 SNK의 '타치바나 우쿄' 캐릭터 배경 이야기를 해당 게임 세계관과 적절히 조화시켜 스토리의 재미를 한 층 더 높였다. 아름다운 화풍을 자랑하는 '난세왕자'는 전통 SLG(시뮬레이션 게임) 장르의 체험을 뒤엎고 공개테스트 다음날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또한, 가입자 수와 매출 순위 모두 상위권 랭킹에 자리매김해 있다.

중국 게임업체와 지속적인 IP 제휴로 중국 게임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주목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SNK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하고 사업을 다각화하고자 펀드(임시 명칭 ZP SNK TMT Fund I L.P.)를 설립하고, 종핑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Zhong Ping Investment Partners (Cayman) Limited)가 운영을 맡기로 했다. 이번에 설립할 펀드는 문화와 오락, 최첨단 기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IP 및 M&A에 적극 나설 계획인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e-sports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종핑캐피탈은 2016년 6월 금융 업계의 여러 고위 전문가에 의해 설립되어 중국의 일류이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안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나아갈 회사다. 현재 인터넷, 통신, 미디어 기술,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의료, 재생에너지 등 많은 영역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종핑캐피탈의 대표 왕개국은 중국 증권가에서 이미 오랜 노하우를 축적한 인물이기도 하다.

왕개국은 과거 하이통증권 회장, 상하이 증권 거래소 이사, 중국 증권협회 부회장, 상하이 경제 체제 개혁 연구회 부회장, 국가국유자산관리국 과학연구소 부소장 등을 맡은 적이 있다. 현재는 종핑캐피탈 회장직을 맡고 있다.

SNK인터랙티브 홍보팀 관계자는 "최근 몇 언론을 통해 당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변수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나 기회가 되면 IR간담회나 외부 행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끝>

<자료 문의>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전성국 대리 (010-5477-0979 / skchun@snkcorp.co.kr)

SNK인터랙티브 홍보담당 이은수 사원 (010-4491-7537 / eslee@snkcorp.co.kr)

<SNK 인터랙티브 소개>

SNK는 일본 오사카에 본사를 둔 게임회사로 일찍이 전 세계에 수많은 게임을 제공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올 상반기 증시에서 화제를 모은 공모기업 중 하나로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아랑전설' '메탈슬러그' '사무라이 스피리츠(사무라이 쇼다운)' 등 1990년대를 풍미한 인기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흥행한 IP들 외에도 콘솔과 모바일 게임을 지속해서 개발 및 판매하며 성장 동력으로 앞세우고 있으며, 신규 IP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